

대주주보

모든 성인 대축일

2020. 11. 1. (가해) 제2239호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마태 5,12)



산상수훈, 프라 안젤리코, 1437년, 이탈리아 피렌체 성 마르코 대성당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이 날에는...



연일본당 주임 | 서정만 이시도로 신부

이 날에는 진복팔단을 읽습니다. 이 글이 체득되기까지는 지난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체득한 분들이 있으니, 이분들은 성인이며 모든 신앙인이 닮을 분이 됩니다.

한 사람이 도시에 나와 성당에 나갔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그에게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합니다. 하늘 나라가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는 나누는 것으로 가난해졌고, 하느님이 하늘 나라를 자신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체득하며 행복해졌습니다. 그들은 그다음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는 슬픈 삶을 자주 찾아갔고, 그들의 슬픔이 자신의 삶을 위로해 주고 있음을 체득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두 번째 행복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또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물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언 것을 녹이고, 더러운 것을 벗겨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살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또 그렇게 행복해졌습니다. 그들은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는 바르게 마음먹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름이 주는 양심의 자유만으로도 그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비로운 사람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더는 기억을 못하게 되었을 때, 하느님은 그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행복해졌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는 어린 날의 깨끗한 마음을 기억해 냈습니다. 나쁘게 생각할 줄 몰랐던 그 마음을 되찾자, 나쁜 것과 섞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였습니다. 그는 또 그렇게 행복해졌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불완전함을 참고 기다려주었습니다. 그의 인내를 보고 사람들은 그가 하느님을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모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과 사악한 말로 그의 삶을 부서뜨려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르쳐주었던 마지막 행복이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그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모욕에, 박해에, 거짓과 사악에 대한 달관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하느님은 달관의 삶으로 큰 상을 주시려 하셨습니다. 그는 진정 행복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분의 향기가 되어갔습니다.

'모든 성인의 날'은 이렇게 살아온 분들의 날을 기억합니다. 365일의 달력은 이런 분들로 가득 차 오늘이 생겼습니다. 신앙이 곁들지 않아 우리의 삶도 이렇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입김이 늦가을, 늦은 향기로 불고 있습니다. **필문**

포기하면 편해요!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 : 다름에 대한 인정

교구 소림상담소장 | 김종섭 토마스 신부

사람은 모두 다 다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그것은 상대가 나와 같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의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서입니다. 즉, 우리가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하고 나의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심지어 상대의 눈치를 보는 경우조차도 내심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가 주 관심사입니다.

몇 년 전에 친구 신부 세 명과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 때부터 친해서 종종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항상 미묘한 갈등이 생깁니다. ‘저녁에 뭐 먹으꼬?’라면 ‘난 중국집, 난 고기, 난 분식, 난 아무거나’ 네 명이 제각각입니다. 여행지에 도착하면 한 명은 쇼핑, 한 명은 맛집 탐방, 한 명은 명승지(산책길), 한 명은 숙소에서 쉬겠다 합니다. 한 숙소에서 각각 다르게 움직이면 아주 불편합니다. 끼니마다 매번 시간을 맞춰야 하고, 숙소 열쇠는 누가 챙기며, 어딘가에 갈 때 의견도 분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명이 같이 여행 온 의미가 없습니다. ‘야! 그래도 모처럼 같이 왔는데!!!’라며 다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한 번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비용은 더 들겠지만, 각각 다른 방을 잡자! 그리고 저녁 먹을 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자! 알아서 하고 싶은 것 하다가 모이자.’ 그렇게 모여서 각자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니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함께 여행을 갔다 하여 함께 움직이고, 같은 곳을 가야 하며, 같은 것을 먹어야 할까요? 내 생각, 내 방법 단지 그것만 포기하면 편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관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형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속성이어서 결코 손상되고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랑을 알아듣고 느끼며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생각, 감정, 태도가 그르침이 없고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런저런 것을 하였는데, 정작 상대방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 형제자매, 오래된 친구나 지인. 가까운 사이일수록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많아지고 주고받는 감정, 생각, 마음들이 빈번해지니까 착각과 실수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상대를 향한 나의 사랑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과 태도는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방법과 태도를 바꾼다고 하여 자신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내 방법과 태도에서 ‘뭔가 하지 않기를 하는’ 선택을 해도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을 살펴보세요. 때로는 포기할 때 편합니다. **필문**

교황, 신임 추기경 13명 임명

2020년 10월 25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정숙

교회를 위한 13명의 추기경이 새로 임명됐다. 이들 가운데 9명은 80세 미만으로 차기 콘클라베(교황 선출 선거회)에 참여할 자격을 갖는다. 나머지 4명은 80세 이상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언제나 그랬듯 예고 없이 신임 추기경 임명 소식을 발표했다. 10월 25일 주일 삼종기도 말미에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의 신자들들과 전 세계에 연결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 소식을 알렸다.

신임 추기경 가운데 2명은 교황청 소속이다. 몰타 출신이며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사무처 사무총장인 마리오 그렉(Mario Grech) 주교, 그리고 이탈리아 출신 알바노 전임 교구장으로 교황청 시성성 신임 장관인 마르첼로 세메라노(Marcello Semeraro) 주교다. 아울러 교황은 전 세계 교회 6명의 사목자들을 추기경으로 임명했다. 곧 △르완다 키갈리대교구장 안토니 캄반다(Antoine Kambanda) 대주교 △미국 워싱턴대교구장 윌턴 그레고리(Wilton Gregory) 대주교 △필리핀 카피즈대교구장 호세 푸에르테 아드빈쿨라(Jose Fuerte Advincula) 대주교 △칠레 산티아고대교구장 첼레스티노 아오스 브라코(Celestino Aós Braco) 대주교 △브루나이대목구장 코르넬리우스 심(Cornelius Sim) 주교 △이탈리아 시에나대교구장 아우구스토 파올로 로주디체(Augusto Paolo Lojudice) 대주교다. 교황은 또한 끈베틀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아시시 준관구봉사자(준관구장) 마우로 감베티(Mauro Gambetti) 신부도 추기경으로 임명했다.

교황은 추기경단에 80세 미만 9명의 신임 추기경들과 함께 80세 이상인 4명의 신임 추기경들을 포함시켰다. 80세가 넘는 신임 추기경들은 △멕시코 산 크리스토탄 데 라스카사스 대교구의 펠리페 아리즈멘디 에스퀴벨(Felipe Arizmendi Esquivel) 전임 대주교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와 협력하는 제네바 유엔 사무국 전임 상임 옵저버 실바노 토마시(Silvano Tomasi) 대주교 △교황청 강론 전담 사제인 카푸친 프란치스코회 라니에로 칸타라메사(Raniero Cantalamessa) 신부 △디비노 아모레 본당 주임 엔리코 페로치(Enrico Feroci) 신부다.

추기경들은 베드로의 후계자에 대한 봉사에 “필요하다면 피를 흘리면서까지(usque ad sanguinis effusionem)” 희생할 준비가 돼 있음을 뜻하는 진홍색 옷을 입는다. 또한 비록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다하더라도, 추기경들은 교황이 주교인 교회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영원의 도시 로마에 한 성당을 지정 받는다.



홍교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1738~1801년)

홍교만(洪敎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한양 출신으로, 훗날 경기도 포천으로 이주해 살았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고 있었으며, 그도 높은 벼슬을 지낸 만형과 함께 일찍부터 학문에 힘써 진사가 되었다. 1801년에 순교한 홍인레오는 그의 아들이며, 같은 해에 순교한 정철상 가롤로는 그의 사위이다.

포천으로 이주해 사는 동안, 홍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양근에 사는 고종사촌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집을 드나들다가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신앙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먼저 천주교에 입교한 아들 홍인에 게서 교리에 대해 자세히 들은 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는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1794년 말 주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홍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주 신부를 찾아가 세례를 받고 미사에 참석하였다. 그런 다음 비신자 친구들과 교제를 끊고, 자신의 학식을 이용하여 더 깊이 교리를 연구하였다. 또 글을 잘 알지 못하는 신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가르치기도 하였으며, 냉담자를 회두시키거나 교리를 알고자 찾아오는 이들을 권면하는 데 열중하였다. 포천 지역에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그의 이러한 열성 때문이었다.

1801년의 신유박해가 일어나자마자, 홍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사돈 정약중 아우구스티노의 책상자

를 자신의 집에 숨겨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 신자가 이 상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박해자들에게 발각되었고, 이내 그의 이름도 박해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아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스스로 오래 피할 수 없음을 알고는 집으로 돌아왔고, 오래지 아니하여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2월 14일, 홍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곧장 의금부로 압송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위협에도 전혀 굴하지 않았으며, 박해자들 앞에서 끊임없이 ‘천주교 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실제로 박해자들이 오히려 그의 용감한 태도에 놀랄 정도였다.

“하느님은 천지의 큰 부모가 되시니, 어찌 큰 부모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또 큰 부모를 섬기는 천주교를 감히 사악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천하의 진리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악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홍교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끊임없이 배교를 강요당하였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박해자들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4월 8일(음력 2월 26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63세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묵시 7,2-4.9-14	제 2 독서	1요한 3,1-3	복 음	마태 5,1-12L.
화 답 송	◎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보리라.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모집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으로서 신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2년의 과정을 마친 후 정식으로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한 : 2020. 11. 2(월) ~ 13(금) / **인터넷 접수** : <http://cu.ac.kr>
문의 : 053)660-5111

DCU 대구가톨릭대학교
DAEGU CATHOLIC UNIVERSITY

유스티노 자유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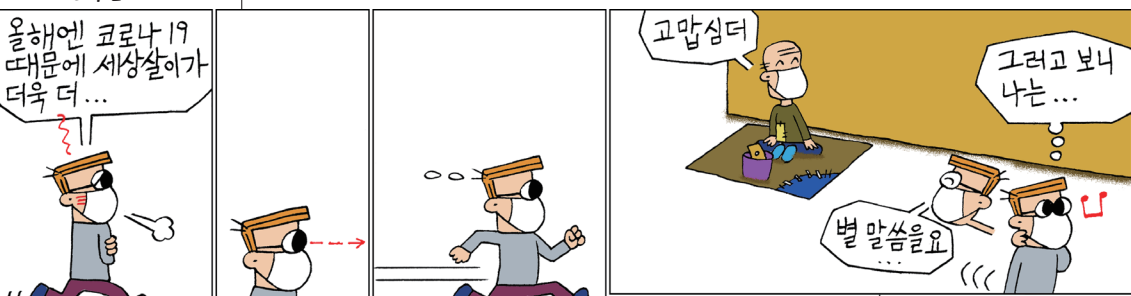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 인문학 석사 학위 과정
- 모집** : 2020. 11. 2(월) ~ 13(금)
- 대상** :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 무관)
- 강의** : 월, 목요일 야간 (남산동 유스티노캠퍼스)
- 혜택** : 모든 학생에게 50% 장학금 지급
- 문의** : 053)660-5253~4 / 010-6563-0409
<http://spgr.cu.ac.kr>

행복은 바로

올해엔 코로나 19 때문에 세상살이가 더욱 더...

박성규 엘리지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미사 안내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월 2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1월 2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1월 2일(월) 11:00 죽도성당	-	-

성소 | 피정

가르멜수도회 성소 모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2140-7414

산내 치유 피정(정원 10명)

일시: 11.17(화) 14:00~18(수) 18:00
장소: 효령하늘집 / 피정비: 4만원
문의: 이곡성당, (054)382-0091

토요 성령기도회

일시: 매주 토 14:00~17:3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묵주 기도 피정: 매주 목 11:00~16:30
문의: (010)9045-0191

예수마음기도 영성 수련 피정(권민자 수녀)

1박 2일: 11.7~8 / 12.12~12
3박 4일: 11.26~29 / 12.17~20
8박 9일: 11.16~24 / 12.26~1.3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제주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제주성지·평화·역사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트레킹
일시: 11.11~13 / 11.16~19
11.22~25 / 12.5~7 / 12.11~13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교육 | 모집 | 기타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고전무용·장구, 미술심리상담사,
플룻, 색소폰, 연필초상화, 제대꽃꽂이,
오카리나, 서양화, 사범자격과정꽃꽂이,
발성법, 가곡성가, 섬유평예, 우쿨렐레,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효성초등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일시: 11.16(월)~20(금) 9:00~16:30
대상: 2014.1.1~12.31 출생 아동,
조기입학자 및 2020년 취학의무유예자
설명회: 11.7(토) 10:30, 셋별관
문의: 720-5500 사전예약

마리아유치원 2021학년도 입학 설명회

일시: 11.6(금) 10:30
장소: 마리아유치원 강당
대상: 2016.1.1~2017.12.31 출생자
원서접수: 11.18(수)~20(금)
방법: 처음학교로 / 문의: 745-2091

대건고 2021학년도 입학 설명회

일시: 11.21(토) 14:00
장소: 대건고등학교
문의: 입학홍보실, 235-4560
기회균등전형(국민기초, 차상위 등) 입학시
전원 장학금 지급, 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모집

접수: 10.26(월)~11.20(금)
상호문화캠프: 11.7(토)
주최: 사랑의씨든수녀회 운영 학교법인
문의: (061)432-9241

서울평협 온라인 열린세미나

일시: 11.7(토) 16:00~19:00
주제: 공동합의성 권위주의와
다수결 주의를 넘어서
발제: 현재우 박사
유튜브: CPBC TV_가톨릭콘텐츠의 모든 것
<http://www.clas.or.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모집

장소: 골롬반평신도선교사센터
(서울 동선동)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24~40세 신자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고령성가의집(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고령 쌍림면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1인 1실 사용
대상: 65세이상 일상생활 가능한
기초수급자 어르신
문의: (054)954-1824 / (010)2362-7044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메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농사
최준우 (미카엘)
상담 및 청력검사 문의 (053)257-8588

DCMC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DAE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
장례식장 053)650-4444/657-4444
성요셉요양병원
장례식장 053)617-3644
가톨릭 신자 시설사용료 20% 할인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원장 박 의 현(안드레아)
☎053)252-1785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경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의 이수운(소피아), 홍정흠(대건안드레아)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 위령의 날 미사

- 11.2(월) 10:00 교구청 성직자 묘지
- 11.2(월) 11:00 군위 묘원
- 11.2(월) 11:00 범물동 묘원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주재용(바오로) 신부
1975년 11월 1일
- 박병원(필립보) 신부
2002년 11월 3일

교육 | 모집

2021 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접수: 11.2(월)~13(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850-3508(교육),
660-5252~4(특수)
http://www.cu.ac.kr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3기생 모집

개강: 11.24(화)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780-4535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 주말

381차: 11.27(금)~29(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방송시간: 금, 토 14:00~15:00
강사: 11월_최동석(안드레아)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채용 | 안내

범어대성당 전가설비 유지 유경험자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본당주임신부 추천서
근무지: 범어대성당
문의: 범어대성당, 790-1300

복자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PC 가능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접수: tlseogus25@hanmail.net
문의: (010)9810-3190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읍내동)

문의: 간호과, 320-2750~1
http://www.tcmch.co.kr

군위묘원 위령의날 미사 안내

일시: 11.2(월) 11:00, 성직자묘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구 버스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 국밥 판매를 하지 않으니
개인도시락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군위묘원 위령성월 미사 안내

※ 11.1~10 매일 11:00, 묘원성당
미사 전후에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서정란(요안나)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 사전서류접수: 10.26(월)~11.6(금)
- 제출방법: 문화홍보국 방문 또는 우편
- 주보광고접수: 11.26(목)
- 장소: 대건관 2층 가정복음화국 회의실
- 제출서류: 교적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광고문안
- ※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광고접수일부턴 익일까지)

광고접수시간 예고 | 광고접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문화홍보국에서 사전에 진행한 순번추첨결과와 예상접수시간을 광고주들에게 미리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8~9

제주도 · 추자도
국내 167 곳의 거룩한 땅
성지순례단 모집

★ 4명 이상 수시 출발 가능 ★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혈 레(유스티노) 흥미 최(안젤라)

칠곡속내과
CHIL-GOK SOK INTERNAL MEDICINE

위·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만성질환클리닉, 성인예방접종

원장 이정수(요한) T. 053)327-0300

대구 3호선 팔거역 4번 출구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신동 616) 척탑병원 3층
청라언덕(신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대구대교구 월명성모의 집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어르신들을 위해서
성모님 사랑 안-
안락한 노후생활을

문의 054)434-2898
김천시 남면 주전로 1448-16

37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탈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743-4488 M. 010-3530-7467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신속 확장 이전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증정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루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치질 내시경 건강검진
(위·대장)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산격시장 앞 053-959-7175
010-9597-7175